

HEALTH & WELFARE REVIEW

보건복지연구

Vol.9 No.1 / December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ORIGINAL ARTICLE

- 5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다민 · 김수현 · 이창욱 · 김한곤 · 한현수 · 윤예지 · 노지혜 · 장수정
- 19 자연스러운 영어발화를 위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성대진동개방시간 분석
임 운
- 2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변화에 관한 맥락-패턴 분석
박수지
- 39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성차별 인식과 과제
이행옥
- 47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지식 및 생활습관
김진성 · 김나영 · 김준희 · 김지인 · 전수민 · 최예지 · 최선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다민 · 김수현 · 이창욱 · 김한곤 · 한현수 · 윤예지 · 노지혜(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장수정(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W시 소재 대학교의 2학년 이상 간호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1학년 학생은 교수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제한적이고 학업성취도 자료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수집은 간호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또는 ANOVA, Pearson 상관분석 및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0.28, p<.001$)과 진로준비행동($\beta=0.28, p=.004$)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beta=0.22, p=.004$)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beta=0.19, p=.017$)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 모두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고 진로준비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교류를 촉진하는 팸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학업성취, 자기 효능감, 사회적응, 간호대학생

I. 서론

대학 시절은 자신을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로, 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을 탐구하며 그것들이 직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대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이들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간호 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며, 전공 이론을 학습하는 동시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 현장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간다(곽윤경, 2013; 유혜순, 2022; 신혜정, 박현정, 2017; 송윤정, 2014).

간호학은 간호의 이론 습득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회복을 돕는 실천적 과제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직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명희, 2021).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시기 동안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과 관련된 학습동기를 높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진로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공적 대학생활과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참여와 성공은 대학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배상훈, 김혜정, 2013).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가 학생들의 심리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간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임경민, 박정훈, 2018).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주로 학업이나 진로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남신동 외, 2019). 배상훈과 김혜정(2013)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 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학업시간을 늘리고 실

질적인 학습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genauer과 Volet (2014)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능력을 배양하고 가치와 태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진로설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그 빈도와 질이 높아지면 학생은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동료는 물론 대상자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이 교수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향후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안은경, 2021).

이에,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과 학습자 만족도, 회복탄력성, 핵심역량, 생활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전문직 자아개념, 취업불안 등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안은경, 2021). 그러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각 변수들과의 상관성 분석은 대부분 1편의 연구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안은경, 2021),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한편, 대학 내 상호작용에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외에 학생 간 상호작용도 포함된다(이유리, 2022). 이는 동료 학습자나 선후배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학습해가는 자기주도적이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전영미, 조진숙, 2017).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습 과정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 대학생활 만족도, 수업 참여와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 수업 참여와 만족, 대학생활 적응 및 만족을 위해 학생 간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정리, 2022). 그러나, 간호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대인관계 역량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학생 간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 역량, 진로준비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W시 소재 G대학 소속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첫째, 2024년 1학기 기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둘째,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2024년 1학기 기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학년의 경우, 조사 시기상 교수 또는 학생 간 상호작용의 경험이 거의 없고,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적이 산출되기 전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 산출에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14개, 양측 검정,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80%를 적용한 결과, 최소 135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적용한 결과, 총 16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수는 총 137명이었고 누락된 응답이 없어 모두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 도구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교수-학생 상호작용 6문항, 학생 간 상호작용 3문항, 학교생활 적응 21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3문항, 학업성취도 1문항, 진로준비행동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만 나이,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망 순위, 전공 선택 이유, 전공 만족도, 졸업 후 진로 계획, 동아리 활동 여부, 팸(Familial community for Achievement and Mature personality, Fam)활동 관련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팸(Fam)활동이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재학생의 학습 활동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강릉원주대학교의 고유한 대학생활동 공동체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계획은 물론, 졸업생의 사후 관리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인재상을 양성하고, 우수 인재를 배출하며,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 등(2020)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문항은 6개, 학생 간 상호작용 문항은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영 등(2020)의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고, 학생 간 상호작용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구 Cronbach's $\alpha=.81$, 학생 간 상호작용 도구 Cronbach's $\alpha=.85$ 였다.

3) 학교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문은식과 김충희(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최임숙(2004)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생활적응, 사회적 생활적응, 정의적 생활적응 등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대체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최임숙(2004)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하정효(2003)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 난이도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6문항의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최저 점수는 23점이고 최고 점수는 115점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보고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였고, 하정효(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였다.

5)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누적 학점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누적 학점 평균 구간은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으로 나누었다.

6)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과 김계현(1997)이 사범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임은미와 이명숙(2003)이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항목으로 정보수집행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행동 7문항으로 총 18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임은미와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도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였다. 해당 간호학과와 social network service(카카오톡)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에게 Google Survey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설문지를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와 함께 제공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화면에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와 내용, 이익과 보상, 위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자료의 보관, 증도 철회 또는 중단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게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답변에 '네'라고 작성한 후,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해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연락처는 사례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자료 수집 후, 2000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컴퓨터의 완전 삭제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했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 3)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25세 이하가 86명

(62.7%)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108명(78.8%), 남성 29명(21.2%)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 74명(54.0%), 3학년 38명(27.7%), 2학년 25명(18.2%)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당시, 전공 지망 순위는 1지망이 104명(75.9%)으로 가장 높았으며, 3지망 이상 17명(12.4%), 2지망 16명(11.7%)이 뒤를 이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높은 취업률'이 57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에 맞는다 생각해서' 35명(25.5%), '전문직' 25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공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 61명(44.5%), '만족'이 50명(36.5%)으로 나타났다. 학과 동아리 또는 학과 학생회 활동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93명(67.9%)으로,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학과 동아리 또는 학과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는 '병원간호사'가 102명(74.5%)으로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가 졸업 후 진로 계획이 병원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팸(Fam) 상담 참여 횟수는 '2회'가 94명(68.6%)로 가장 많았고, 작년 기준(1년 간) 팸(Fam) 활동 참여 여부(팸 회식, 학습동아리)는 '팸 회식 참석'이 63명(46.0%)으로 가장 많았다. 팸(Fam) 활동 만족도는 '보통' 59명(43.1%), '만족' 47명(34.3%), '매우 만족' 17명(12.4%)으로 나타났다(표 1).

2.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수준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은 4점 만점 중 평균 1.73 ± 0.53 점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내용으로 '학업계획·전공에 대한 상담'이 2.05 ± 0.6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취창업에 대한 상담' 2.02 ± 0.67 점, '수업 내용·과제에 대한 상담' 1.78 ± 0.77 점, '시험 내용·과제에 대한 상담' 1.69 ± 0.75 점, 'MT, 식사, 취미로 교수와 교류' 1.50 ± 0.64 점 순이었으며,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이 1.35 ± 0.64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은 4점 만점 중 평균 2.99 ± 0.72 점 이었고, 상호작용 내용으로 '수업과제·발표 준비 시,

다른 학생과 이야기한 적이 있음'이 3.22 ± 0.7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험준비 시, 다른 학생과 도움 주고 받은 적이 있음'이 2.94 ± 0.87 점,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생과 이야기한 적이 있음'이 2.80 ± 0.91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21 ± 0.55 점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11 ± 0.46 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은 누적 성적 '3.5 이상 4.0 미만'이 50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 이상'이 46명(33.6%), '3.0 이상 3.5 미만'이 28명(20.4%), '3.0 미만'이 13명(9.5%)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 중 평균 2.48 ± 0.58 점이었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 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령($F=3.65, p=.014$), 졸업 후 진로계획($F=2.89, p=.038$), 지난 1년간 펌 활동 상담 횟수($F=4.00, p=.014$)였으며, 사후 검정에서 펌 상담 참여횟수가 0회인 군보다 4회 이상 군이 교수-학생 상호작용 점수가 높았다. 학생 간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F=3.15, p=.046$), 전공만족도($F=4.75, p=.001$), 졸업 후 진로계획($F=4.34, p=.006$)였으며, 사후 검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인 군이 학생 간 상호작용 점수가 높았고, 졸업 후 진로계획이 '미결정/기타' 군보다 '병원간호사' 군이 학생 간 상호작용 점수가 높았다.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F=3.58, p=.031$), 전공만족도($F=9.20, p<.001$), 펌 활동 만족도($F=2.72, p=.032$)였으며, 사후 검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만족', '매우 만족'인 군이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고, 펌 활동 만족도가 '만족'인 군보다 '매우 만족'인 군이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입학 당시 간호

학과 지망 순위($F=3.81, p=.024$), 전공만족도($F=3.48, p=.010$)였으며, 사후 검정에서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가 3지망 이하인 군보다 1지망인 군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년($F=6.11, p=.003$), 전공만족도($F=3.33, p=.012$), 졸업 후 진로계획($F=4.74, p=.004$)였으며, 사후 검정에서 학년이 2학년보다 4학년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았고, 졸업 후 진로계획이 미결정/기타 군보다 병원간호사 군과 타 기관 군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표 1).

4.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 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 펌 상담 횟수, 펌 활동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 간 상호작용($r=.35, p<.001$), 학교생활 적응($r=.35,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7, p<.001$), 진로준비행동($r=.53, p<.001$), 펌 상담 횟수($r=.31, p<.001$), 펌 활동 만족도($r=.19, p<.025$)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r=.48,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6, p<.001$), 진로준비행동($r=.4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46, p<.001$), 학업성취도($r=.20, p=.017$), 진로준비행동($r=.38, p<.001$), 펌 활동 만족도($r=.21, p=.016$)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r=.26, p=.003$), 진로준비행동($r=.6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진로준비행동($r=.20, p=.017$)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펌 상담 횟수($r=.19, p=.029$)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펌 상담 횟수는 펌 활동 만족도($r=.26, p=.003$)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N=137)

변수	구분	n(%)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연령 (세)	≤20	26(19.0)	1.62±0.41	2.96±0.12	3.24±0.48	3.08±0.38	2.69±1.09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3.08±0.38
	21~25	86(62.7)	1.77±0.56	2.96±0.72	3.24±0.58	3.15±0.49	3.07±0.90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3.15±0.49
	26~30	22(16.0)	1.61±0.40	3.09±0.89	3.07±0.55	3.02±0.43	2.73±1.0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02±0.43
	≥31	3 (2.3)	2.46±0.57	3.17±0.33	3.17±0.41	3.10±0.54	3.00±0.82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3.10±0.54
성별	남성	29(21.2)	1.72±0.49	2.90±0.60	3.31±0.55	3.21±0.47	2.69±1.00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3.21±0.47
	여성	108(78.8)	1.73±0.49	3.01±0.75	3.19±0.55	3.08±0.46	3.01±0.94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3.08±0.46
학년	2학년 ^a	25(18.2)	1.55±0.38	2.95±0.71	3.09±0.62	3.05±0.42	2.88±1.05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05±0.42
	3학년 ^b	38(27.7)	1.67±0.40	3.03±0.62	3.33±0.37	3.11±0.37	2.84±1.08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3.11±0.37
	4학년 ^c	74(54.0)	1.82±0.60	2.98±0.78	3.19±0.59	3.13±0.52	3.01±0.87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3.13±0.52
	미지정	104(75.9)	1.78±0.55	3.07±0.68	3.28±0.54	3.15±0.47	3.06±0.9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3.15±0.47
학과 지망 순위	2지망 ^b	16(11.7)	1.56±0.27	2.75±0.75	2.93±0.45	3.02±0.48	2.75±0.6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02±0.48
	≥3지망 ^c	17(12.4)	1.58±0.50	2.69±0.82	3.06±0.61	2.92±0.39	2.41±0.94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2.92±0.39
	미지정	35(25.5)	1.80±0.51	3.07±0.66	3.31±0.49	3.16±0.38	3.06±0.97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3.16±0.38
전공 선택 이유	전문직	25(18.2)	1.87±0.53	3.13±0.74	3.35±0.56	3.27±0.48	2.84±0.94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3.27±0.48
	취업률	57(41.6)	1.65±0.50	2.86±0.79	3.08±0.50	3.03±0.49	3.07±0.94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3.03±0.49
	수입	3 (2.2)	1.83±0.50	3.56±0.51	3.21±0.69	2.94±0.55	2.33±0.58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2.94±0.55
	성적	4 (2.9)	1.33±0.47	2.58±0.57	3.32±1.12	3.01±0.54	3.00±0.82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3.01±0.54
전공 만족도	권유	13 (9.5)	1.74±0.66	3.03±0.50	3.21±0.64	3.07±0.46	2.69±1.03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3.07±0.46
	매우 불만 ^a	8 (5.8)	1.94±0.96	2.04±0.93	2.67±0.80	2.97±0.92	2.63±1.30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2.97±0.92
	불만족 ^b	10 (7.3)	1.60±0.48	3.03±0.73	2.92±0.57	3.01±0.42	2.00±0.8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3.01±0.42
	보통 ^c	61(44.5)	1.66±0.42	2.99±0.60	3.14±0.46	3.00±0.42	3.08±0.90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3.00±0.42
만족 ^d	만족 ^d	50(36.5)	1.78±0.50	3.05±0.75	3.33±0.47	3.21±0.39	2.94±0.91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3.21±0.39
	매우 만족 ^e	8 (5.8)	1.98±0.87	3.42±0.50	3.97±0.31	3.52±0.38	3.38±0.92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3.52±0.38

변수	구분	n(%)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진로 계획	병원 ^a	102(74.5)	1.71±0.44		3.07±0.68	3.22±0.53	3.10±0.44	3.06±0.93	2.50±0.55					
	타 기관 ^b	18(13.1)	2.02±0.87	2.89 (0.038)	2.96±0.75	3.35±0.54	3.28±0.62	3.11±0.83	2.76±0.64	6.56 [*] (<.001)	6.56 [*] (<.001)	2.76±0.64	4.74 [*] (.004)	
	대학원 ^c	4 (2.9)	1.67±0.41		3.08±0.92	3.11±0.76	3.28±0.39	2.50±0.58	2.35±0.32	a>d	a>d	2.35±0.32	a,b>d	
	미결정,기타 ^d	13 (9.4)	1.49±0.47		2.33±0.67	3.00±0.63	2.86±0.38	1.92±0.86	2.00±0.56			2.00±0.56		
동아리 학생회 무	유	93(67.9)	1.76±0.52	-0.87 (.386)	2.99±0.69	3.22±0.53	3.16±0.46	3.03±0.99	2.53±0.56	-1.62 (.109)	-1.62 (.109)	2.53±0.56	-1.36 (.175)	
	무	44(32.1)	1.67±0.54		2.97±0.69	3.19±0.58	3.01±0.47	2.75±0.87	2.39±0.63			2.39±0.63		
	없음 ^a	10 (7.3)	1.33±0.31		2.93±0.78	3.37±0.66	3.20±0.49	2.70±0.68	2.24±0.64			2.24±0.64		
	1회 ^b	20(14.6)	1.66±0.70	4.00 [*] (.014)	2.72±0.72	3.30±0.57	3.11±0.68	2.80±1.06	2.29±0.76			2.29±0.76		
팜 상담 횟수	2회 ^c	94(68.6)	1.73±0.45		3.05±0.70	3.15±0.53	3.08±0.41	3.03±0.92	2.53±0.52	.88 (.479)	.88 (.479)	2.53±0.52	1.50 (.207)	
	3회 ^d	8 (5.8)	2.00±0.40	a<e	3.04±0.65	3.33±0.40	3.20±0.35	2.88±1.13	2.49±0.60			2.49±0.60		
	≥4회 ^e	5 (3.6)	2.33±0.91		2.87±1.12	3.50±0.76	3.35±0.52	2.40±1.52	2.78±0.79			2.78±0.79		
	없음 ^a	31(22.6)	1.61±0.46		2.77±0.76	3.01±0.59	3.03±0.53	2.84±0.90	2.45±0.60			2.45±0.60		
팜활동 참여 유형	회식 ^b	63(46.0)	1.73±0.49		3.06±0.67	3.29±0.50	3.17±0.40	2.86±0.97	2.47±0.53			2.47±0.53		
	학습동아리 ^c	15(10.9)	1.76±0.52	1.58 (.184)	2.98±0.82	3.12±0.54	3.02±0.46	3.13±0.74	2.40±0.64	0.67 (.612)	0.67 (.612)	2.40±0.64	0.64 (.635)	
	회식과 학습동아리 ^d	26(19.0)	1.90±0.66		2.99±0.72	3.30±0.57	3.14±0.55	3.15±1.12	2.64±0.66			2.64±0.66		
	기타 ^e	2 (1.4)	1.25±0.35		3.83±0.24	3.60±0.71	2.85±0.09	3.00±1.41	2.25±0.75			2.25±0.75		
팜활동 만족도	매우 불만 ^a	4 (2.9)	1.17±0.19		3.00±0.27	3.11±0.30	3.28±0.69	2.75±0.96	2.31±1.17			2.31±1.17		
	불만족 ^b	10 (7.3)	1.78±0.52		3.13±0.79	3.20±0.42	3.14±0.44	3.20±0.63	2.63±0.40			2.63±0.40		
	보통 ^c	59(43.1)	1.67±0.51	2.05 (.091)	2.89±0.70	3.11±0.52	3.11±0.50	3.02±1.06	2.42±0.56	2.18 (.075)	2.18 (.075)	2.42±0.56	0.80 (.531)	
	만족 ^d	47(34.3)	1.77±0.53		2.97±0.75	3.21±0.56	3.04±0.44	2.66±0.87	2.48±0.58			2.48±0.58		
매우 만족 ^e	17(12.4)	1.92±0.56		3.25±0.71	3.59±0.60	3.24±0.38	3.35±0.86	2.66±0.62			2.66±0.62			

* Scheffé test

5.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 위계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즉,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전공만족도, 펌 활동 만족도를, 2단계 위계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학업성취도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위계에서는 전공만족도($p < .001$)와 펌 활동 만족도($p = .039$)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0.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42.9%로, $22.2\%p(F=10.36, p < .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 = 0.35, p < .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beta = 0.28, p < .001$), 학생 간 상호작용이 높을수록($\beta = 0.22,$

$p = .004$), 펌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 = 0.15, p = .028$),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위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즉, 전공만족도를, 2단계 위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위계에서는 전공만족도($p = .002$)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39.7%로, $33.7\%p(F=18.90,$

<표 2>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N=137)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10	0.23		9.20	<.001	0.48	0.30		1.58	.118
간호학과 지망 순위*(2지망)	-0.19	0.13	-0.11	-1.39	.168	-0.11	0.12	-0.07	-0.97	.334
간호학과 지망 순위(3지망)	-0.02	0.13	-0.01	-0.12	.905	0.10	0.12	0.06	0.85	.395
전공만족도	0.24	0.05	0.40	4.94	<.001	0.17	0.04	0.28	3.86	<.001
펌활동만족도	0.10	0.05	0.16	2.09	.039	0.09	0.04	0.15	2.22	.028
교수-학생 상호작용						0.09	0.09	0.09	1.05	.296
학생 간 상호작용						0.17	0.06	0.22	2.88	.005
학업적 자기효능감						0.41	0.11	0.35	3.91	<.001
진로준비행동						-0.07	0.09	-0.07	-0.82	.416
학업성취도						0.02	0.04	0.40	0.57	.573
$R^2_{adj}(\Delta R^2_{adj})$.207					.429(.222)				
F(p)	9.88(<.001)					10.36(<.001)				

*1지망
더미 변수 reference)

<표 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N=137)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67	0.15		18.42	<.001	1.26	0.20		6.19	<.001
전공만족도	0.13	0.43	0.26	3.11	.002	0.16	0.04	0.03	0.41	.686
교수-학생 상호작용						0.24	0.07	0.28	3.77	<.001
학생 간 상호작용						0.12	0.05	0.19	2.38	.019
학교생활적응						0.26	0.07	0.31	3.65	<.001
학업성취도						0.06	0.03	0.13	1.83	.070
$R^2_{adj}(\Delta R^2_{adj})$.060					.397(.337)				
F(p)	9.67(.002)					18.90(<.001)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beta=0.31$, p<.001),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beta=0.28$, p<.001),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beta=0.19$, p=.017),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 위계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즉, 입학 당시 간호학과 지망 순위, 전공만족도, 졸업 후 진로계획을, 2단계 위계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진로준비행동을 투입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위계에서는 졸업 후 진로계획(p=.002)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11.9%로, 1.7%p(F=3.05, p=.002)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졸업 후 진로계획($\beta=-0.29$, p=.003)이 학업성취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었는데, 진로계획이 아직 미결정상태인 군이 병원 간호사를 희망하는 군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8.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

<표 4>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N=137)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79	0.34		8.18	<.001	1.61	0.61		2.64	.009
간호학과 지망 순위*(2지망)	-0.14	0.25	-0.05	-0.56	.578	-0.11	0.25	-0.04	-0.44	.660
간호학과 지망 순위*(3지망)	-0.16	0.28	-0.05	-0.56	.575	-0.13	0.28	-0.05	-0.48	.634
전공만족도	0.09	0.09	0.08	0.95	.948	0.03	0.10	0.03	0.30	.768
졸업 후 진로계획†(타 기관)	0.05	0.23	0.02	0.20	.840	-0.02	0.24	-0.01	-0.10	.923
졸업 후 진로계획†(대학원)	-0.61	0.47	-0.11	-1.30	.198	-0.64	0.47	-0.11	-1.36	.176
졸업 후 진로계획†(미결정/기타)	-0.97	0.31	-0.30	-3.10	.002	-0.94	0.31	-0.29	-3.01	.003
학업적 자기효능감						0.39	0.24	0.19	1.67	.097
학교생활 적응						0.09	0.18	0.05	0.48	.634
진로준비행동						-0.05	0.18	-0.03	-0.30	.763
$R^2_{adj}(\Delta R^2_{adj})$.102					.119(.017)				
F(p)	3.57(.003)					3.05(.002)				

더미 변수 reference) *1지망, †간호사

<표 5>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N=137)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1.53	0.23		6.58	<.001	-0.39	0.31		-1.25	.214
학년	0.19	0.06	0.25	3.24	.002	0.15	0.05	0.19	3.09	.002
전공만족도	0.16	0.53	0.24	2.94	.004	0.90	0.46	0.14	1.95	.053
졸업 후 진로계획†(타 기관)	0.25	0.14	0.15	1.88	.062	0.11	0.11	0.06	0.96	.339
졸업 후 진로계획†(대학원)	-0.28	0.27	-0.08	-1.02	.310	-0.33	0.22	-0.10	-1.54	.126
졸업 후 진로계획†(미결정/기타)	-0.31	0.16	-0.15	-1.86	.065	-0.12	0.14	-0.06	-0.86	.392
교수-학생 상호작용						0.25	0.09	0.28	2.92	.004
학생 간 상호작용						0.09	0.06	0.11	1.45	.148
학업적 자기효능감						0.55	0.10	0.43	5.42	<.001
학교생활 적응						-0.06	0.09	-0.06	-0.73	.465
학업성취도						-0.01	0.04	-0.01	-0.17	.866
뎀 상담 횟수						0.03	0.05	0.05	0.69	.490
$R^2_{adj}(\Delta R^2_{adj})$.182					.505(.323)				
F(p)	7.04(<.001)					13.62(<.001)				

더미 변수 reference) *1지망

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 위계에서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즉, 학년, 전공만족도, 졸업 후 진로계획을, 2단계 위계에서는 진로준비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팸활동 참여횟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위계에서는 학년($p=.002$), 전공만족도($p=.004$)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수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단계 위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50.5%로, 32.3%($F=13.62$,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0.43$, $p<.001$), 교수-학생 상호작용($\beta=0.28$, $p=.004$), 학년($\beta=0.19$, $p=.002$)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생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IV. 논의

본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은 평균 1.73 ± 0.5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은영 등(2020)의 연구결과인 평균 1.68 ± 0.64 점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김은영 외, 2020)의 조사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학업계획·전공에 대해 교수와 상담한 적이 있음'이 평균 2.05 ± 0.69 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선행 연구(김은영 외, 2020)에서 '수업 내용 및 과제에 대해 교수와 상담한 적이 있음'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상담을 하는 교수의 특성이 주로 팸(fam) 지도교수인 것이 요인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인 영역은 '개인적인 일로 교수와 상담한 적이 있음' (1.50 ± 0.64 점)이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김은영 외, 2020)와 일치하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대면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내용도 주로 학업과 성적 위주로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보다는 학문적 수월성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최보금, 조성희, 2014).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은 평균 2.99 ± 0.72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은영 등 (2020)의 연구 결과(2.44 ± 0.86 점)보다 높았다. 이 결과 또한 선행 연구(김은영 외, 2020)의 자료수집 시기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되었던 COVID-19 팬데믹 시기였고, 본 연구의 경우,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료를 위계적 회귀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이은숙, 봉은주, 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앞서 연구대상자들이 교수와 상호작용했던 주된 내용이 학업계획과 전공, 진로와 취업에 대해 상담한 것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교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임경민, 박정훈, 2018; 정경숙, 2024)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경숙(2024)은 학생과 교수와의 상담 과정에서 학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교류함으로써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전공 만족도와 학교생활의 적응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교수와 보이지 않는 소통의 장벽이 있고 관계 형성이 수월하지 않음을 경험하며 교수를 무섭고 완고한 존재로 느껴 다가가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다(박광옥, 김중

경, 2020). 따라서, 교수가 학생과 상담할 때, 학업, 진로 및 취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인관계나 정서적 어려움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김희정, 2017; 장선영, 김누리, 2013)에서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유의한 변수로 보고된 것과 차이가 있어, 향후 반복연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학 내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공식적 수업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수업 외에도 대학생을 정의적, 인지적으로 성장시킨다고 한 것(이유리, 202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의 교우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논문 연구 결과(김지연, 2015)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펌 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만큼, 펌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습 면에서는 또래 멘토링, 팀프로젝트와 같이 협동 학습 기회의 발전 및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학생 간 상호작용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고 진로준비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간 교류를 촉진하는 펌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 상호작용을 상담 위주의 활동으로 측정하였으나, 다양한 교류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측정해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정리(2022).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수업 참여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22집: 575-590.
- 곽윤경(2013).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 14집: 2178-2186.
- 김명희(202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9집: 311-333.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제 39집: 95-123, .
- 김은영, 조옥경, 서재영, 남신동, 백승주, 김혜진, 박성호(2020).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VIII)”, RR2020-12.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연(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7).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기주도학습, 대학 몰입의 경로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9집: 40-50.
- 남신동, 임후남, 최정윤, 김지하, 문보은, 조옥몽, 서재영, 권순형, 유예림, 김진희, 백승주, 조재운, 김수연, 황지원(2019). 대학의 교수학습 질 계고 전략 탐색 연구(VII) (RR2019-19). 한국교육개발원.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 16집: 219-241.
- 박광옥, 김종경(2020). “간호대학생의 교수와의 의사소통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제 26집: 205-217.
- 배상훈, 김혜정(2013) “대학의 학업지원, 교수-학생 교류, 능동적·협동적 학습 및 학업도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 21집: 201-225.
- 송윤정(2014).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박현정(2017). “간호대학생의 전공몰입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17집: 643-664.
- 안은경(2021).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간호 연구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제17집: 45-56.
- 유혜순(2022).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 24집: 1865-1877.
- 이유리(2022). “대학생의 상호작용이 학습경험과 역량 향상을 매개하여 전공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제 32집, 343-363.
- 이은숙, 봉은주(2017).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제 23집: 107-114.
- 임경민, 박정훈(2018).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집: 195-205.
- 임은미,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 제 1집: 101-113.
- 장선영, 김누리(2013). “공학전공 학생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문제해결능력, 학습전략,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제 25집: 581-602.
- 전영미, 조진숙(2017). “대학에서의 플립트러닝 수업사례를 통해 본 학습자의 수업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 23집, 499-521.
- 정경숙(2024).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 적응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 25집: 179-187.
- 최보금, 조성희(2014).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제52집: 29-54.
- 최임숙(2004). “성역할 정체감과 대인 갈등관리 및 학교적응 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주(2019).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효(2003). “ICT 활용 수업 유형이 영어 학습 태도, 학업성취도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genauer, G. & Volet, S.E. (201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t university: An important yet under-researched field”, *Oxford Review of Education* 40(3): 370-388.
- Gardner H. (1995).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York: Basic Books.

Abstract

The Impact of Professor–Student and Peer Interactions on Nurs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min Baek¹, Soo Hyun Kim¹, Chang Uk Lee¹, Hangan Kim¹, Hyunsoo Han¹,
YeJi Yoon¹, Jihye Noh¹, Soo Jung Chang²

¹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fessor-student and peer interaction on nurs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37 second-year and highe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W city, excluding first-year students due to their limited experience with professor or peer interaction and the absence of academic achievement grade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recruitment notice posted in a social network service group for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8 to May 21, 202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8 software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r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fter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peer interaction ($\beta=0.22$, $p=.004$)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adjustment.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beta=0.28$, $p<.001$) and peer interaction ($\beta=0.19$, $p=.017$)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beta=0.28$, $p=.004$)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although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ey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foster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peer communication to enhance th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Academic success, Self efficacy, Social adjustment, Students, nursing

*필자 정보

백다민, 김수현, 이창욱, 김한곤, 한현수, 윤예지, 노지혜(이상 7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장수정(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 간호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분야는 성인(노인)간호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만성질환자(치매, 당뇨) 간호, 노인요양시설 실무, 생애말기 환자 간호, 질적 연구방법론, 측정도구 개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Professional socialization of hospital nurses: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BMC Nursing, 2023), “Registered nurses' experiences of end-of-life care in nursing homes of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Healthcare, 2022) 등이 있다.

*E-mail: sjchang@gwnu.ac.kr

자연스러운 영어발화를 위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성대진동개방시간 분석

임 운(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하여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영어발화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하여 한국인의 영어발화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영어발화의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절음 단위에서 나타나는 성대진동개방시간을 Multi-Speech와 Praat이라는 음향음성학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영어교사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과 대조·분석하여 한국인 영어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한국인 교사의 발화를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사의 평균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연구개음>양순음>치경음의 순으로 성대 진동개방시간의 길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Lisker & Abramson(1964)의 연구결과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Lisker & Abramson(1964)은 발화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단어 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하는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원어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latt(1964)의 한국어와 영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영어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발화속도가 원어민보다 느리기 때문에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초등과 중등을 비교하여 보면,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중등 교사보다 초등 교사가 길게 나타났다.

주제어: 자연스러운 발화, 성대진동개방시간, 유창성, 정확성, 분절음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과 동시에 한류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학습자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여 발화할 때, 원어민이 학습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습자가 원어민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김기섭, 1993).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여 발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상의 차이, 음운상의 차이, 운율상의 차이와 음성음운의 구조 차이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발화(natural pronunciation)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 6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1992)의 영어발음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음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소의 정확한 발화에 기초하여, 연접, 호흡 단위(pause), 강세, 억양, 리듬 등의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를 인지뿐만 아니라 분절음(segmentals)과 초분절음(suprasegmentals)의 정확한 발음에 기초하여 말의 속도와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즉 후어휘 음운현상을 잘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발음교육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발화는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과 강세, 억양, 리듬과 같은 초분절음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말의 속도와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즉 후어휘음운현상을 알맞게 적용한 발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Chastain(1971: 237)은 발음 지도 단계를 “초급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대신,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규칙에 있어서보다는 뜻의 전달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초급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발음지도는 분절음소, 간단한 발화를 위한 서술과 질문, 그리고 강세와 리듬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중급과 상급 단계의 발음지도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 그리고 모국어 화자가 희노애락을 표시할 수 있는 정의적 장치 등의 능력 배양하기까지를 포함한다.”와 같이 주장하였다. Chastain(1971)의 초급 단계에서는 분절음과 강세와 리듬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중급과 상급 단계에서는 복잡한 문자의 이음과 억양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분절음의 학습, 초분절음의 학습 그리고 후어휘음운론(Postlexical Phonology)적 발음의 학습을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Ladefoged(1993)는 원어민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의 발화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발음으로 취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강약에 의한 리듬이 있게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약화, 탈락, 축약, 연음 등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강세에 의한 리듬이 나타나지 않거나, 후어휘음운론적 음운 현상을 알맞게 발음하지 못하면, 원어민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절적 요소에서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성대진동개방시간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발화의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후어위적 단위의 발음에서 발생하는 한국어의 성대진동개방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발음의 표시 차원

발음의 표시 차원은 <표 1>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 언어에 내재해 있는 기저형(Underlying Form) 차원과 어휘 규칙(Lexical Rule)이 적용되어 어휘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적 음운적 표시(Lexical Phonological Representation) 차원 그리고 후어휘 규칙(Post-lexical Rule)이 적용된 체계적-음성적 표시(Systematic Phone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 마지막 차원은 체계적-음성적 표시를 수치(scale value)로 나타낸 추상적인 음성 표시의 차원을 벗어난 물리적, 음향음성적 표시(Physical Acoustic Representation) 차원이다(Jensen, 1993: 27).

이러한 표시 차원의 근거가 되는 어휘음운론, 후어휘적인 운율층위이론(Prosodic Hierarchy)과 음조단위(Tonal Unit)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음성적인 발음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들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상 차이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음성적인 발음 변화에 연계하여, 이를 물리적-음향적 수치로 표시하기 위한 음향음성학의 일반 연구를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의 근거로 제시한다.

2. 어휘음운론적 현상

어휘음운은 음운규칙에 의하여 도출되고, 이것은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추상적인 발음 표시와 어휘음운적 규칙에 의하여 음운현상(phonological phenomena)으

로 표시된다.

어휘음운론적 음운현상은 후어휘음운현상과는 달리 어휘 안에서만 일어나는 분절음의 변화, 탈락, 삽입 등을 말한다. 영어의 어휘음운현상으로는 강제규칙과 연계되는, 외율성(Extrametricity)규칙, 모음이완규칙(Vowel Laxing), 리듬규칙(Rhythm Rule), 모음변화(Vowel Shift), 유성음화와 무성음화(Devoicing), 비음동화(Nasal Assimilation), 구개음화(Palatalization), 마찰음화(Spirantization), 탈락(Deletion), 삽입(Insertion) 등이 있다.

3. 분절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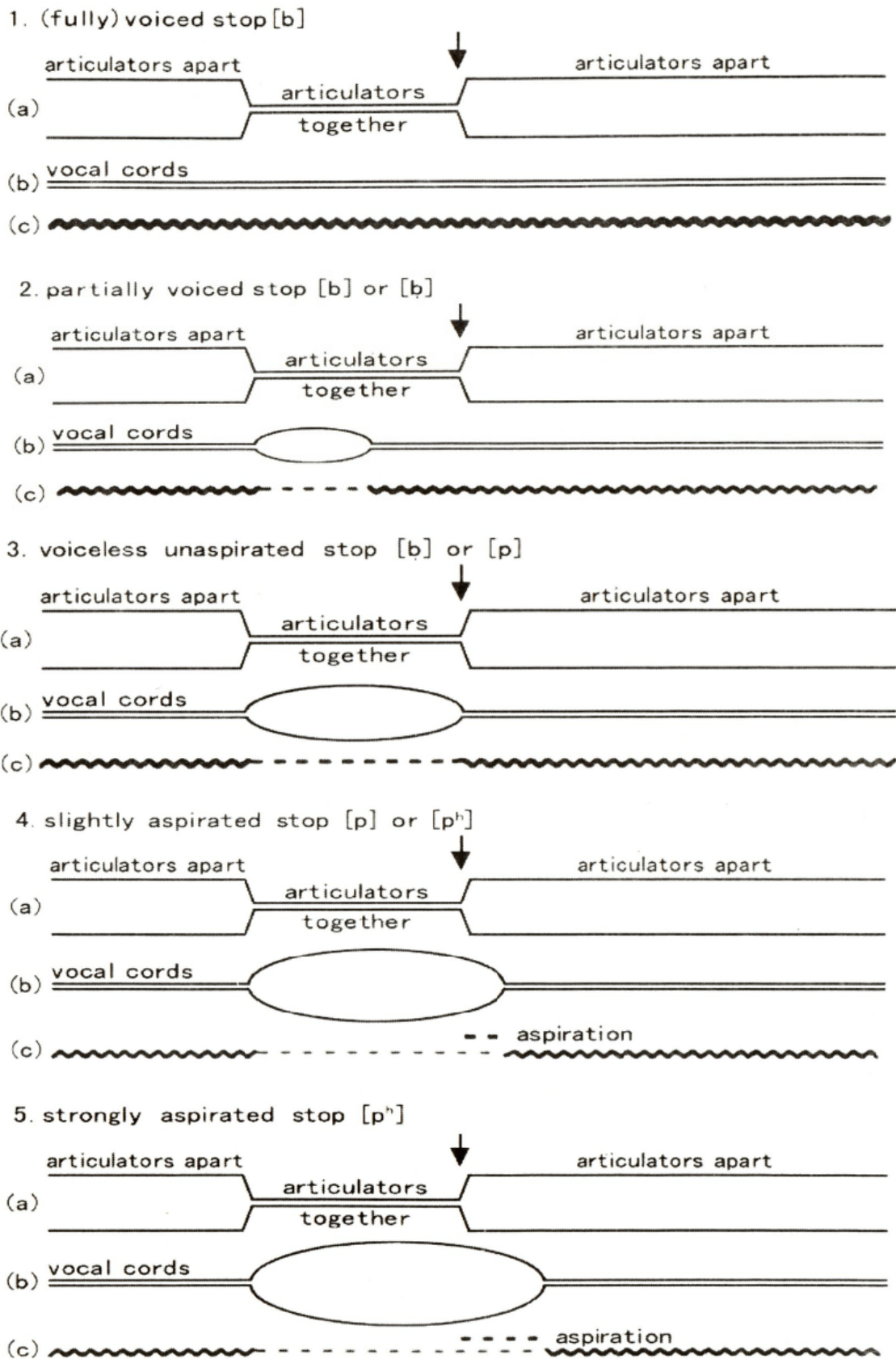
성대 진동개방시간(Voice Onset Time : VOT)은 구강 내에서 폐쇄되었던 공기가 방출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성대가 진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Ladefoged(1993: 143)는 다음의 5가지의 경우를 들어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a)는 조음점의 폐쇄시점과 개방시점(그림에서의 ↓)을 나타내고, (b)는 성문의 열린 정도를 나타내고, (c)는 성대의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데 파상선은 성대의 진동을, 단속선은 무성음을 의미한다.

<그림 1>의 1은 완전 유성음을 나타내고, 2는 부분적 유성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3은 무성 무기파열음을 나타낸 것이다. 4는 개방시간보다 약간 뒤에 유성이 시작된 경우로 약한 유기음(slightly aspirated)이다. 5는 개방시간보다 상당히 늦게 유성이 시작된 강한 유기음이다(strongly aspi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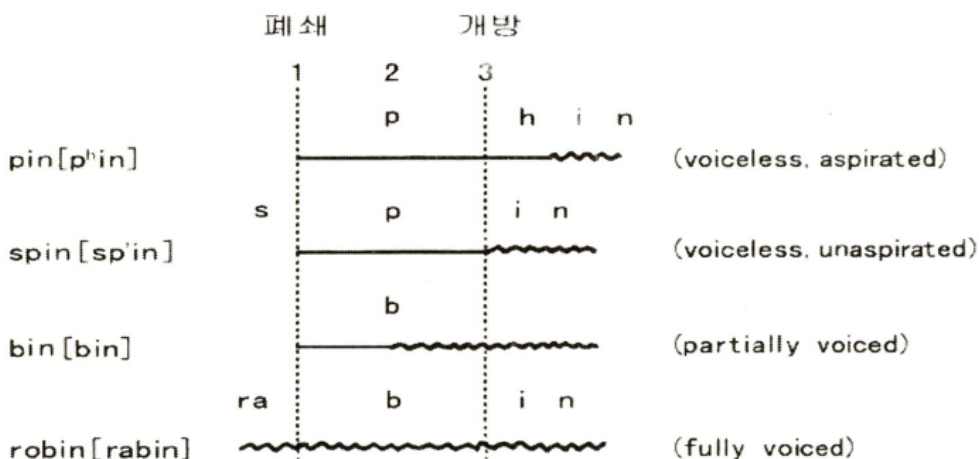
/pin, spin, bin, robin/에서 /p/와 /b/의 성대진동은 <그림 2>와 같다.

<표 1> 발음 표시 차원

	차원	근거	특징
a	체계적, 음소적	목록화된 기저 표시	탄설음화, 성문음화, 이중모음, 연구개음, 비음 등이 없음
b	어휘적, 음운적	어휘 규칙에 의하여 (a)로부터 도출됨	이중모음, 연구개음, 어휘적 음운현상 등이 있음
c	체계적, 음성적	통사적 결합과 후어휘 규칙으로 (b)에 의하여 도출됨	성문음화, 기식음화, 탄설음화 등 음성적 현상이 도출됨
d	물리적, 음향적	음성적 실현과 비언어 요인으로 (c)에 의하여 도출됨	분절음이 불분명하고 무강세 모음이 선택적으로 탈락됨



<그림 1> 모음간 파열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Ladefoged(1993: 143))



〈그림 2〉 /p/와 /b/의 성대 진동개방시간¹⁾

이러한 성대 진동개방시간 측정기준에 의하여 영어 파열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a. /about/의 [b] < /bat/의 [b] < /spin/의 [pʰ] < /pat/의 [pʰ]
- b. 유성파열음 < 불완전 유성파열음 < 무성 무기파열음 < 무성 유기파열음

Lisker & Abramson(1964), Klatt(1964), Ladefoged(1989)는 원어민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Lisker & Abramson(1964)은 영어와 한국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비교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Ⅲ. 분석 도구 및 절차

1. Visi-Pitch

Visi-Pitch는 원어민의 음성과 학습자의 음성을 비교하여 학습자 스스로 모음, 마찰음 중에서도 치찰음을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다. 작동 기능은 언어 학습, 언어 기록, 언어 분석의 그래픽과 숫자 표시, 음성 표출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절음의 언어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Visi-Pitch를 소리를 녹음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표 1〉 영어 원어민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단위 : msec

연구자 \ 음 소	p ^h	p'	t ^h	t'	k ^h	k'
Lisker & Abramson	78	3	59	15	98	30
Klatt	47	12	65	23	70	30
Ladefoged	40		40		50	

〈표 2〉 한국어와 영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비교

단위 : msec

언어 \ 음 소	p ^h	p'	t ^h	t'	k ^h	k'
영어	78	3	59	15	98	30
국어	91	7	94	11	126	19

1) Liberman and Blumstein(1988: 197)은 원어민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25 msec가 유무성음을 구별하는 경계로 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25 msec 이상이며 /p/로 지각하고,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25 msec 이하인 소리는 /b/로 지각한다고 한다.

2. Multi-speech

Multi-speech는 음향 음성학적 분석, 음성 신호 표시 및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언어 기록, 언어 분석의 그래픽과 숫자 표시, 음성 표출, 음성 신호 편집, 다양한 분석 기능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Multi-speech 프로그램은 Visi-Pitch를 통하여 녹음된 대화 내용을 역양곡선, 포맷트, 에너지, 피치, 진동수 등을 분석할 수 있다.

Multi-speech에서 화면에 창을 여러 개 열어 놓고 A 창에 녹음된 데이터를 불러놓고 다른 창에서 스펙트로그램, 피치, 에너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Multi-speech에서는 구간 설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Multi-speech를 지속 시간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는데, 표본 채취율(sampling rate)을 16 KHz로 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cont]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p, t, k, b, d, g/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음운단어 또는 음보의 첫 자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과 음운단어 내에서의 음절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영어교사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의 한국인 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한국인 교사 전체 평균, 초등학교 교사 평균과 중등학교 교사 평균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Lisker & Abramson(1964), Klatt(1964), Ladefoged(1989)의 연구결과²⁾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사의 평균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연구개음>양순음>치경음의 순으로 성대 진동개방시간의 길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그들의 연구결과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Lisker & Abramson은 발화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된 것이 아니고 개별 단어 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발화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원어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latt의 한국어와 영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영어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발화속도가 원어민보다 느리기 때문에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초등과 중등을 비교하여 보면,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중등 교사보다 초등 교사가 길게 나타났다.

<표 4>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p, b, t, d, k, g/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평균값(대문자는 음운단어 또는 음보의 첫 자음을 가르키며, 소문자는 음운단어 또는 음보를 이루지 못하는 음절의 자음을 의미함.) 단위 : msec

대상 \ 음소	P	p	B	b	T	t	D	d	K	k	G
원어민	22.00	18.00	20.00	20.67	30.40	16.50	16.00	20.50	41.00	18.00	17.00
한국인교사	66.03	54.88	40.45	28.27	55.39	51.09	32.38	32.27	68.67	40.13	46.00
초등 교사	69.17	58.33	46.49	33.83	64.60	57.17	34.42	36.42	75.94	60.00	55.17
중등 교사	62.88	51.44	34.42	22.72	46.18	45.00	30.33	28.13	61.41	20.25	36.83

2) 본 연구 Lisker & Abramson(1964), Klatt(1964), Ladefoged(1989)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참조.

〈표 3〉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p, b, t, d, k, g/의 성대 진동개방시간(대문자는 음운단어 또는 음보의 첫 자음을 가르키며, 소문자는 음운단어 또는 음보를 이루지 못하는 음절의 자음을 의미함.)³⁾ 단위 : msec

음소	N	E 1	E 2	E 3	E 4	E 5	E 6	E평균	S 1	S 2	S 3	S 4	S평균	평균
T	54	98	60	85	91	82	81	82.83	58		53	56	55.67	69.25
T	34	99	94	74	45	82	75	78.17	71		55	63	63.00	70.58
T	17	83	33	58	39	46	28	47.83			36	45	40.50	44.16
T	18		70	59	32	54	50	53.00			35	42	38.50	45.75
T	29	52	71	52	37	50	75	56.17	20	29	29	55	33.25	44.71
평균	30.40	83.00	65.60	65.60	48.80	62.80	61.80	64.60	49.67	29.00	41.60	52.20	46.18	55.39
t	17	64	33	34	31	85	60	51.17	49	42	32	57	45.00	48.09
t	16	72	55	58	75	54	65	63.17	45		31	59	45.00	54.09
평균	16.50	68.00	44.00	46.00	53.00	69.50	62.50	57.17	47.00	42.00	31.50	58.00	45.00	51.09
D	17	42	33	41	22	47	28	35.50	36	29	25	29	29.75	32.63
D	14	42	23	45	31	35	20	32.67	29	29	27	35	30.00	31.34
D	17	52	25	42				39.67	30	38	33	24	31.25	35.46
평균	16.00	45.33	27.00	42.67	26.50	41.00	24.00	34.42	31.67	32.00	28.33	29.33	30.33	32.38
d	24	38	24	39	28	38	26	32.17	28	25	41	13	26.75	29.46
d	17	60	38	36	39	34	37	40.67	40	29	24	25	29.50	35.09
평균	20.50	49.00	31.00	37.50	33.50	36.00	31.50	36.42	34.00	27.00	32.50	19.00	28.13	32.27
P	19	90	94	65	54	65	57	70.83	62	52	33	62	52.25	61.45
P	25	84	79	49	71			70.75	63	80	43	108	73.50	72.13
평균	22.00	87.00	86.50	57.00	62.50	65.00	57.00	69.17	62.50	66.00	38.00	85.00	62.88	66.03
p	18	51	87	47	40	68	57	58.33	59	55	40	37	51.44	54.88
B	15	68	60	43	41			53.00	29	34	30	39	33.00	43.00
B	16	43	38	26	19	52	24	33.67	28	23	22	47	30.00	31.84
B	20	50	71	54	32	46	37	48.33	40	38	28	22	32.00	40.16
B	34	61	66	53	53		87	64.00	34	40	50		41.33	52.66
B	15	50	54	49	27	32	28	40.00	38	18	54	33	35.75	37.88
평균	20.00	54.40	57.80	45.00	34.40	43.33	44.00	46.49	33.80	30.60	36.80	35.25	34.42	40.45
b	20	29	27	23	19	28	24	25.00	36	22	13	14	21.25	23.13
b	24	61	18	31	16	58	28	35.33	21	20	30	10	20.25	27.79
b	18	43	51	48	29	51	25	41.17	27		23	30	26.67	33.92
평균	20.67	44.33	32.00	34.00	21.33	45.67	25.67	33.83	28.00	21.00	22.00	18.00	22.72	28.27
K	25	116	52	97	69	93	52	79.83	59	31	45	70	51.25	65.54
K	59	105		122	48		61	84.00	136	55	50	105	86.50	85.25
K	39	94	90	56	39	63	61	67.17	48	28	26	84	46.50	56.84
평균	44.00	66.00	52.00	54.00	46.67	56.33	54.00	54.83	43.33	2.00	37.00	41.00	30.83	68.67
k	18	83	55	100	36	58	28	60.00	21	20	30	10	20.25	40.13
G	15	72	54	71	117			78.50	34	57	23	31	36.25	57.38
G	26	65		92	20		31	52.00	47	34	20	55	39.00	45.50
G	10	48	78	48	43	43	29	48.17	48	21	36	36	35.25	41.71
평균	25.47	66.33	56.53	50.53	38.93	65.93	65.60	57.31	39.56	33.33	34.20	54.73	40.46	46.00

3) 빈 공간은 잡음이 많이 들어갔거나, 녹음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경우와 발화 속도가 너무 느린 녹음 내용이 제외된 경우를 의미함(이후의 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님).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절적 요소에서 한국인의 영어발음에서 나타나는 성대진동개방시간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발화의 방안을 살펴보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후어위적 단위의 발음에서 발생하는 한국어의 성대진동개방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교사의 평균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연구개음>양순음>치경음의 순으로 성대 진동개방시간의 길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은 그들의 연구결과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Lisker & Abramson(1964)은 발화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단어 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속에서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을 측정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원어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latt(1964)의 한국어와 영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영어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발화속도가 원어민보다 느리기 때문에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길게 나타

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초등과 중등을 비교하여 보면,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의 성대 진동개방시간이 중등 교사보다 초등 교사가 길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기섭(1993) 「영어운율론」, 서울 : 한신문화사.
 _____(1996) 「영어운율론」, 서울 : 한신문화사.
 _____(1998) 「영어음운론 응용」, 서울 : 한국문화사.
 허웅(1983) 「국어학」, 서울 : 샘문화사.
 황희영(1990) 「국어음운론 개설」, 서울 : 한국문화사.
 Chastain, K.(1971) *The Development of Modern Language Skills : Theory to Practice*, Philadelphia : Center for Curriculum Development.
 Jensen, J.(1993) *English Pho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Johnson, K.(1997) *Acoustic and Auditory Phonetics*,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_____(1996)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Ladefoged, P. & I. Maddieso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Abstract

The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 English Teachers' Voice Onset Times for Natural Pronunciation

Lim, Un

(Professor,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unnatural pronunciation of Korean English teachers in situation of improving the importance of English and Korean communication. Unnatural pronunciations are caused of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 tongue and foreign language. For this study, 40 Korean English teachers' pronunciation, but actually 10 teachers' pronunciations was analyzed because of some problems. In this study, Praat and Multi-Speech Acoustic Analysis Program was used. Finding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Voice Onset Times are longer in the order of velars, bilabials, and palatals. All Voice Onset Times of velars, bilabials and palatals are shorter than those of Lister & Abramson(1964). Second,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Voice Onset Times of of velars, bilabials and palatals are shorter than thos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rough this study, we can guess the needs of teaching the differences Voice Onset Time of Korean and English. And through understanding Voice Onset Time of Korean pronunciation, we need them not to apply Korean pronunciation rules in their English pronunciation.

Key words: Natural pronunciation, VOT, Fluency, Accuracy, Syllable

*필자 정보

임 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분야는 영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영어듣기학습에서의 듣기전략 사용과 성별이 모의 TOEIC 듣기성적에 미치는 영향”(교원교육, 2019),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교원교육 2017), “TOEIC 듣기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듣기전략별 남녀 대학생의 사용정도의 차이에 관하여”(교원교육, 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음향분석을 통한 발음지도”(한국문화사, 2013),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도서출판 신정, 2019) 등이 있다.

*E-mail: cloud@gwnu.ac.kr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변화에 관한 맥락-패턴 분석¹⁾

박수지(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양상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장의 종사자와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를 심층 면접하여 2017~2019년 정부 정책이 서비스 현장에서 얼마나 기능하는지 그리고 기타 영향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맥락-패턴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고용변화 패턴은 '서비스 시장의 공급 과잉에 적응하면서 불안정한 수요에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주제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돌봄노동자, 고용변화, 맥락-패턴 분석

I. 서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뤘으며, 2017년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2022년까지 약 34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발표하였다.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17. 10. 18.) 실제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규모는 2018년 204만 6천명에서 2022년 271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www.istans.or.kr/mainMenu.do)

사회서비스 종사자 규모의 양적인 증가 속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

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처우 개선 노력들이 실제로 서비스 현장의 종사자 고용 현실을 개선했는지에 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안수란 외, 201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일자리에 관해 알아보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양상을 종사자와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2017~2019년 추진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실제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적연구방법인 맥락과 패턴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 본 논문은, 안수란 외(201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변화 연구』의 <제5장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에 대한 질적연구> 중 본인이 집필한 <제2절 돌봄분야 고용변화의 맥락과 패턴>의 '2. 산후조리종사원: 산모·신생아 건강 서비스 산후도우미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II. 본론

1.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사회서비스 특수산업 분류의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해당 분야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고용하는 기관의 장이나 사업담당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종사자 외 기관의 장 및 실무담당자의 현장 인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2명과 개별 심층면접을, 해당 기관의 장 및 실무담당자 4명과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산모신생아도우미 특성

사례 구분	분야	성별	연령	직업	경력
1	돌봄 산모신생아	여	60대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5년
2	돌봄 산모신생아	여	50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9년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3)에서 재구성

<표 2> 기관의 장 및 실무담당자 특성

사례 구분	분야	대상 구분	성별	연령
1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50대
2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40대
3	돌봄 산모신생아	기관장	여	50대
4	돌봄 산모신생아	실무담당자	여	50대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4)에서 재구성

2) 자료수집 방법

기관의 장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1회, 약 2시간 진행하였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개별 면접으로 각 1회, 약 1시간 30분 진행하였다. 면접은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상담실 또는 기관 근처의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면접에서는 다음의 <표 3>의 종사자 근로 현황, 고용 변화, 고용의 의미, 고용 전망의 4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 전 연구의 목적, 연구 결과의 활용, 연구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숙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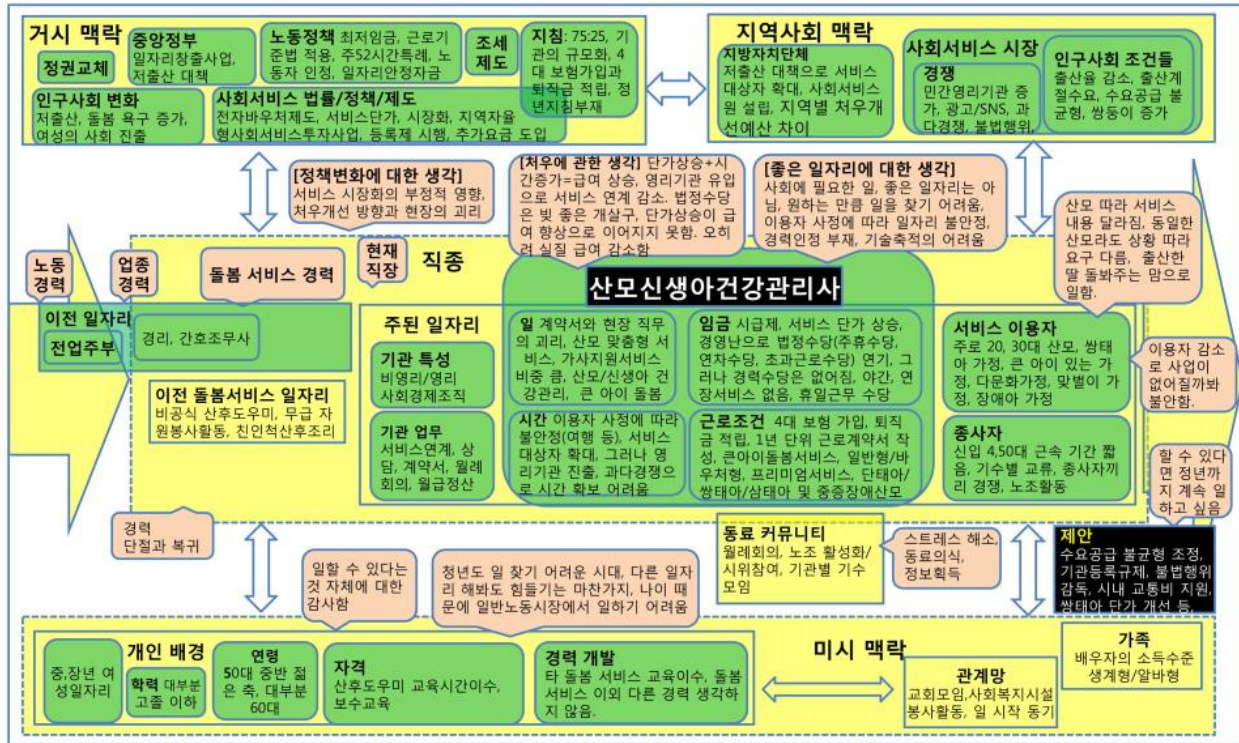
<표 3> 면접 질문지 구성

구성	질문 내용
I. 종사자 근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관 특성(기관 규모, 운영주체, 주요 사업) - 제공서비스 특성(서비스 종류, 서비스 이용자 특성) - 임금 및 근로조건(고용형태, 임금, 근로 시간, 복리후생, 인적자원관리)
II. 고용 변화의 패턴과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시작한 배경 - 직업 경력 - 일, 임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변화 - 변화에 따른 기관과 종사자의 대처 - 향후 계획
III. 고용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의미 -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는 기관의 관점 - 기관 및 종사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 -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
IV. 고용 전망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 -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법, 정책, 제도, 지침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출처: 안수란 외(2019, p. 156)

3) 자료분석 방법: 맥락-패턴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권지성(2018)의 '맥락-패턴 분석'을 활용하였다. 맥락-패턴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현상을 본질, 사물, 의미의






[그림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변화에 관한 맥락-패턴 분석 도식화

층위로 구분한다. 둘째, 연구 현상은 공간 차원의 맥락과 시간 차원의 패턴으로 구성한다. 셋째, 맥락이란 생태체계 관점과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으로 탐색하는 현상 구조 내 구체적인 사물과 의미들을 파악 연결하는 것이다. 넷째, 패턴이란 발달 관점을 적용하여 현상 내 시간 흐름에 따른 사물과 의미들의 연결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섯째, 맥락과 패턴 두 가지 차원과 본질-사물-의미라는 세 가지 현상의 층위를 기본 분석틀로 유지하면서 개별 현상에 맞게 적용하고 변형한다. (안수란 외, 2019) 맥락-패턴 분석에서 사물이란 '일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로 인간이 감각기관과 지각 능력을 통해 관찰하고 경험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며, 의미란 '사물이나 현상의 뜻이나 가치'로 사물에 부여한 뜻이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종사자의 급여 인상은 '사물'이며, 급여가 인상되어 '일을 좀 더 가치있게 생각한 것'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맥락-패턴 분석은 타 질적 연구방법과 달리

사물과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권지성, 2018)

2. 분석 결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변화에 관한 맥락과 패턴 분석

다음의 [그림 1]은 개별 심층인터뷰와 초점 집단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고용변화의 맥락-패턴을 도식화한 것이다. 거시적 차원의 고용 변화의 맥락은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맥락, 지역사회 맥락, 미시 맥락, 일의 맥락으로 살펴보았다. 거시 맥락은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법-제도-정책으로 알아보았다. 지역사회 맥락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지역의 인구 사회적 특성 등의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미시 맥락은 종사자 개인의 배경과 가족, 관계망 등의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의 맥락은 이전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구분하고, 현재 시점의 일자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관, 고용주, 일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서비스 이용자, 다른 종사자 등의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맥락과 맥락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종사자 고용의 패턴을 설명하였다.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맥락과 맥락 내의 하위 구성요소(사물), 하위 구성요소가 지닌 의미는 도형과 색깔을 통해 구분하였다. 맥락은 노란색의 각진 네모(), 하위 구성요소는 초록색의 모서리가 둥근 네모(), 하위 구성요소가 지닌 의미는 살구색의 말풍선()으로 표시하였다.

1) 고용변화의 맥락

(1) 거시 맥락

거시맥락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서비스 단가가 타 돌봄 서비스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 사업 초창기 현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전문성 높은 서비스로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서비스가 서비스 활동에서 실제로 이론이 더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 달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국가자격증 소지가 필수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초창기와 같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 국가자격증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프라이드를 높이고, 이용자 또한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정부 서비스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를 돌봄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법정근로수당 운용에 관한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일의 특성상 일을 맡게 되면 2주 동안 매일 산모를 방문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를 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즉 공휴일, 연차 등의 휴가는 수당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재의 단가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휴게시간 또한 현장에서 논쟁거리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집에서 돌보라는 일이다 보니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기관은 자체적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휴게시간 없이 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가 30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였다.

셋째, 시급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월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사실상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가 어렵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연계되어 기본 2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주 서비스가 종료된 후 다음 서비스 연계까지 대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모 출산예정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종사자는 서비스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시급제의 경우 법정공휴일까지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편 일부 산후도우미는 월급제를 반대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 수입원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기본 2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기간 동안 자유롭게 개인 일정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부업형 종사자가 많아지는 것은 4대 보험 가입 부담 등을 초래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해당한다.

(2)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맥락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고용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지자체 정책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서비스 시장의 과잉경쟁이 종사자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

스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제공기관의 수도 증가했다. (안수란 외, 2018) 2012년 등록제 시행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장의 제공기관 증가를 가져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해 감소 추세이고 결국 서비스 시장의 공급이 과잉되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근무환경과 급여수준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인구 35만인 00시의 경우 비영리 기관 1개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2018년 영리 기관이 5개 추가 증가하였다. 당연히 과다 경쟁이 나타났고 이용자 또한 불법행위로 규제된 돌봄, 백일상, 금품 등의 제공을 공공연히 바라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고, 그렇다보니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가 앞서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40대 산후도우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영리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둘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는 계절적인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는 계절의 선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봄철인 3, 4, 5월에 출산을 선호하며 한여름 7, 8월의 출산은 꺼린다. 게다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장기간 제공되는 일상서비스가 아닌 일회성 서비스에 가깝다.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수요가 많은 시기 인력을 고용할 경우 비수기 경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극단적인 경우 일거리가 없는 시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뒤 성수기 일이 많아지면 다시 재계약하는 행태가 나타난다고 한다. 산후도우미의 입장에서는 고용지위가 위협받는 근로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타 돌봄 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활동서비스투자사업(이하 지투사

업)에 속해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서비스 단가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기간의 차이가 있다. 지투사업의 이용자는 보통 분기별로 모집된다. 11, 12월 접수하여 그해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 2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월부터 적용되어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종종 기관 경영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적자가 너무 크게 예상될 경우 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자에게 부득이 당회기 서비스 철회를 부탁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의 기회가 감소하는 셈이다.

(3) 미시 맥락

미시맥락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들의 배경과 가족, 관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종사자 배경에서 의미를 가진 하위 맥락으로는 학력 및 자격, 경력개발이 있다.

우선, 성별을 보면 여성이 다수였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해야 한다. 즉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특히 아이 양육을 마친 중장년층 여성의 참여가 높다. 현장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여성일자리라 인식되어 있었다. 연령대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와 유사하게 40대 이하가 젊은 층에 속하고 50대가 가장 많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비영리기관 소속으로 현재 소속 기관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종사자의 학력 및 배경으로는 고졸 이하의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다. 과거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단순 사무직이 많았고 종종 간호조무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이전 직장이 간호조무사였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종사자 스스로가 프라이드를 갖고 이용자를 대해 이용자 또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였다. 이전 직장이 사무직이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 운영자들은 이를

공식적인 전문성의 인정 즉 자격증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태도 변화로 해석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함께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동일 기관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여서 서비스 단가도 다르다. 이는 유사한 서비스 간 국가자격증의 유무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의 차이(공단의 장기근속수당, 직무교육비 지급 여부 등), 서비스 단가의 차이에 대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였다. 종사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최근 민간 영리기관에서 베이비시터가 반찬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월 추가요금 1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한다. 본인은 늘 당연하게 해주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서비스 현장 개선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최근 젊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들은 일도 많고 부수입도 많은 민간 영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4) 일의 맥락

일의 맥락은 일과 근로조건, 임금과 근로시간, 기관/동료/이용와의 관계, 일자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개관하였다.

첫째, 일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일은 산모의 가정에서 보통 4~5kg하는 신생아를 안고 일해야 해 체력소모가 높은 일이었다. 그리고 타 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쓰인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일의 범위가 넓고 또 다양하였다. 일의 범위는 서비스 대상자 이외 가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큰 아이가 있는 경우, 형제가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쌍둥이 가정의 경우, 장애아가 있는 경우, 가족이 아파 집에 있는 경우 등 가족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큰 아이가 있는 가정과 쌍둥이 가정의 경우 최근 서비스 단가와 처우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으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단가와 처우 등의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 큰 아이가 아파서 학교나 유치원을 못 갔을 때 집에 있을 경우 산모와 신생아 건강이 무방비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가 쌍둥이 중 한 명만 서비스에 등록할 경우 아이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두 명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초창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한다. 2017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서비스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서비스 종사자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체감할 정도로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지자체가 저출산 정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것이 서비스 시장의 영리업체 유입을 촉발하였고 산후조리종사원 규모의 증가를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일이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 매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할 수 있지만, 일 연계 자체가 되지 못하는 요즘 한 달 중 1~2주 쉬는 것은 보통이 되었다고 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 임금 수준 150~170만 원이었다. 추가 수당과 관련해서 인터뷰 참여자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법정 수당은 연장, 야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초과 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아직 없었다. 이전에는 그나마 처우개선을 위해 경력에 따른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받았지만 이는 법정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없어졌다. 결국 법정수당이 적용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임금 개선에 도움이 된 변화로는 2017년 큰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요금의 도입을 꼽았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다가 유치원에 갔던 큰 아이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돌봐주게 되는데 큰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요금이 인정되어 일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서비스 이용자인 산모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자부담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셋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기관/동료/이용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이용자인 산모와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이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최근 서비스 시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였다. 산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첫째 아이를 돌봐준 인연으로 둘째, 셋째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이웃 산모의 아이를 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서비스 연계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기관과의 관계는 매월 여는 월례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 시간은 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산모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대다수는 이 일을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50대 여성층에게 최적화된 일자리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산모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근무지 속성이 타 돌봄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일은 의료 보조 장비 등을 도입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반면 일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이 일을 좋은 일자리라고 보았다. 일자리가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없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지 못하고 힘든 일임에 비해 처우가 좋지 못하긴 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남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자부심이 있어 자신에게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일을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모두 정년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2) 고용변화의 패턴

종합하여 볼 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환경은 서비스 시장의 공급 과잉에 적응하면서 불안정한 수요에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통합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후도우미가 경험한 고용변화의 패턴은 '수요가 불안정한 서비스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산모신생아건강지원서비스 사업을 전문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 민간 시장의 산후조리서비스와 경쟁하며 바우처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영유아종일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이용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수요의 계절적인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고려한 정책이나 지침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는 서비스 시간 확보의 불확실성을 개인적으로 감수하면서 적응해 왔다. 한편 최근에는 노조를 통해 대응책을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지나치게 이용자 중심인 서비스 현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양상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면담 녹취록을 맥락-패턴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맥락과 지역사회 맥락의 객관적인 사실 즉 '사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환경(임금, 근로조건, 일, 시간 등)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경험한 고용변화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7~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변화 패턴은 '서비스 시장의 공급 과잉에 적응하면서 불안정한 수요에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의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으로의 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둘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의 적정성과 노무관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현재의 서비스 단가와 운영방식으로는 기관이 종사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신생아중심의 서비스에 산모 중심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적절하게 채우할 필요가 있다는 점, 휴게시간의 현실화, 월급제 선택 가능성, 둘째아 이상 출산자의 가사지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 과잉에 관한 규제, 계절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일자리의 안정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지역사회봉사서비스 투자사업에 속해 있어 서비스 단가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의 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권지성(201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맥락-패턴 분석 방법』. 서울: 학지사.
- 안수란·김유휘·권지성·박수지·조동훈·김용환·남재욱·하태정(201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변화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김보영·김선·김은하·김현진·박수지·송나경·엄태영·이하나·전용호·주은수·추병주·하태정·함영진·황정하(2018)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2017. 10. 1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세종: 일자리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istans.or.kr/mainMenu.do> (2023. 12. 22. 인출)

Abstract

Context–Pattern Analysis of Changes in Employment Situation of Mother and Newborn Health Care Provider

Park, Susi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mother and newborn health care provider and chang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eld workers, heads of institutions, and working-level personnel to find out how much government policies function in the service field from 2017 to 2019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 employment of service personnel through context-pattern analysis. As a result, the employment pattern of mother and newborn health care provider could be seen as a 'process of preparing self-rescue measures against unstable demand while adapting to the oversupply of the service market'.

Key words: Mother and Newborn Health Care Voucher Service, Mother and Newborn Health Care Provider, Care Worker, Change in Employment Situation, Context–Pattern Analysis

*필자 정보

박수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Justus-Liebig 대학에서 사회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서비스정책, 장애인복지, 사회적경제 등이다.

*E-mail: susiepark@gwnu.ac.kr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성차별 인식과 과제

이행옥(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성인 초기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은 현재와 미래의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며, 성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성차별을 인식하고 가족, 학교, 사회를 연계한 교육과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생태학적 관점, 성차별, 양성평등

I. 서론

현대 사회의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feminism)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관한 현재의 성차별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환경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별(sex)이 생물학적 남녀구별을 의미한다면 젠더(gender)는 사회문화적 성별을 뜻한다(이기숙 외,

2021). 최근 남녀 간의 성별 특성에 관한 경향은 생물학적 요소보다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역할과 기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성의 구별은 생물학적이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기반에 근거한다는 것이다(유영주 외, 2022). 따라서 성의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능력, 욕구, 및 인생관에 따라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성에 의해 집단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역할가치관은 지양됨이 좋다. 따라서 가족 및 사회적 역할도 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담되어야 한다. 젠더 관점은 보다 민주적, 양성 평등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해준다. 페미니즘(feminism) 분야는 성차별에 관한 새로운 가치와 행동강령을 제안하는 등 성 차별성, 불평

등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이재경, 2003;이기숙 외, 2021재인용).

가족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애정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 헌신하고 자원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Olson과 Defrain, 1999;유영주 외, 2022재인용)이다. 체계이론(systems theory)은 한 개인은 그들의 가족이 변화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며, 반대로 한 개인이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이론이다(브론펜브레너, 1979;조희금 외, 2023).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 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는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성차별(sexism)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관련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생태학적 관점

생태이론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이론이다(브론펜브레너, 1979;조희금 외, 2023).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 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브론펜브레너(1979: 조희금 외, 2023재인용)는 생태이론을 가족과 인간발달에 적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4대 생활체계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체계는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개개인이 대상이나 환경을 가까이 경험하는 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미시체계는 가족, 학교, 이웃처럼 개인이 경험하는 일차적 물리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 유형 등을 포함한다. 중간체계는 개인 또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외체계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극적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거시체계는 사회문화 가치관이나 공공정책 등과 같이 하위체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나 사회적 제도, 이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브론펜브레너, 1979;조희금 외, 2023재인용).

2. 연구방법

가족과 젠더 수업을 수강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분류하여 성차별 현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대학생들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결과

1) 가족에서의 성차별

‘육아와 밀린 집안일로 지친 여성’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가사노동을 통해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성 불평등을 느꼈다. 여성의 왼쪽에는 밀린 빨래 바구니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가 쌓여 있고 여성은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사진1] 육아와 밀린 집안일로 지친 여성¹⁾

“여성의 나이를 추정해 보았을 때, 많아야 20대 중반으로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든 해내려는 여성이 너무 대단해요. 지난 201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²⁾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을 합한 가사노동 시간은 225시간. 남성은 64시간 이터라고요. 이것만 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 부부 간 가사 노동 역할을 어떻게 분담했는지를 조사³⁾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620명 중 15.1%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고 있으며 47.1%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이 조금, 33.9%가 아내와 남편이 반반, 3.0%가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가 조금, 0.9%가 남편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훨씬 많아 보여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가사

노동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사 노동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이 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2) 학교에서의 성차별

‘교과서 속 성차별, 그릇된 고정관념 확대 재생산’ 사진은 초등학교 6학년 체육 교과서의 ‘경쟁활동’ 단원 중 배드민턴 경기를 묘사하는 삽화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문제점은 응원단은 모두 여성, 심판과 감독·선수들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는 점이다. 이 외에도 5학년 체육 교과서에는 사춘기 신체 성장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남학생은 튼튼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세, 여학생은 귀여운 자세를 취하는 삽화가 등장한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학교 내 성차별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⁴⁾은 양성평등 시범학교인 충북의 초등학교에서 교원들로 구성된 교과서 성차별 모니터링 동아리를 운

1) <https://www.herfamily.ie/parenting/parenting-heavier-toll-women-442269>

2)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32>

3)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 2021. 부부간 역할 분담



[사진2] 교과서 속 성차별, 그릇된 고정관념 확대 재생산⁴⁾

영한 결과, 교과서 속 삽화·이미지·표현 등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내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3학년 국어 교과서 '알맞게 소개해요' 단원 중 친구를 소개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여학생은 분홍색 가방과 인형을 떠올리는 것으로 묘사되었어요. 4학년 사회 교과서 내 농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는 대목에서는 논밭 갈이, 김매기와 수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남성으로 그려져 있고, 3학년 과학 교과서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소개하는 사진에서도 연구원이 모두 남성으로 제시돼 직업상 남녀 비율이 불균형하게 나타난 것으로 지적됐어요.

교과서를 매개로 세상을 배우는 학생들은 지문과 삽화에 스며있는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교과서는 기존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성차별적인 삽화와 지문이 난무한 것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 앞으로의 교과서는 보다 비판적으로 볼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해요.” (김 OO)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3) 사회에서의 성차별

‘남녀의 업무분담, 물리적 차이’는 참여자가 생각하는 업무 불균형 문제 중 남녀의 물리적 차이에서 오는 업무 불균형의 사진이다. 참여자가 본 사진 속 남성과 여성은 서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은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며, 여성은 레일이 있는 곳에서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사진 속 장소는 물류센터로 남성들은 화물차에서 물건을 하차시키고 분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여성은 분류되어 레일에 올라온 물건을 레일을 따라 이동시키며 물품을 스캔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업무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 사회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업무 분업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어요.

4) <https://brunch.co.kr/@wikitree/2082>

5) <https://brunch.co.kr/@wikitree/2082?pidx=1>



[사진3] 남녀의 업무분담, 물리적 차이⁶⁾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⁷⁾으로, ‘부서 업무 배치 시 차별 발생’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고 답변을 한 남성은 10.9% 이고, 동일 답변의 여성의 비율은 8.5%로 차이가 났어요. 차별발생이유로는 남성이 ‘업무가 남성과 여성의 일로 구분되어 있어서’라고 16.0%가 응답을 했으며, ‘여성 스스로 어려운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라고 10.4%의 응답이 뒤따랐습니다. 여성은 ‘여성 스스로 어려운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라는 부분엔 6.4%로 소수답변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남녀 간 인식차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업무의 불균형은 종종 물리적 차이를 근거로 정당화되지만, 이러한 관행은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직장 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해요.

물리적 차이를 근거로 한 업무 분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할당에 있어 성별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직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여 성별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한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4.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결과

1) 가족에서의 양성평등

“201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⁸⁾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여성이 225분, 남성이 62분이라고 해요.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 참여 시간이 높지만, 지난 2014년의 53분과 비교했을 때 참여 시간이 증가한 것을 보면 조금씩 더 가사 노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그리고 청소나 빨래 등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 배려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라고 설명했다.

6) <https://brunch.co.kr/@wikitree/2082>

7)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22414>

8)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32>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2018년 여성가족부는 교과서의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 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 결과⁹⁾, 국민들이 꼽은 교육 자료의 성차별 표현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역할, 직업, 외모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 총 614건 (68.7%)로 가장 많았어요.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과서에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구분해서 설명한 것 △실과 교과서에 여성만이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한 것 △과학자·의사는 남자로, 기상캐스터·간호사는 여자로 그린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인 위인을 소개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여성 위인을 남성 위인의 조력자로 소개하는 것,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위주로 서술된 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280건(31.3%)으로 뒤를 이었어요.” (김 ○○)라고 설명했다.

3)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OECD에서 2023년에 발표한 통계자료¹⁰⁾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한 남성과 여성을 OECD 국가 평균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55-64세의 우리나라 남성은 37.8%, 여성은 22.4%로 약 15%정도 차이가 나며, OECD 남성은 28.9%, 여성은 31.2%으로, OECD 국가들 보다 한국 남성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통계자료에서 25-34세의 한국 남성은 63.4%, 한국 여성은 76.7%입니다, OECD 국가평균은 남성은 41%이고, 여성은 54.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대의 한국은 1980년대보다 여성의 교육 수준도 세배 이상 상승을 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성의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교육 체계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의 진전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성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양성평등을 반영하도록 변화하고 있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라고 설명했다.

III. 결론

연구결과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성차별 현황으로 최종 선택한 사진은 '육아와 집안일로 지친 여성', '성차별 가득한 교과서', '남녀의 업무분담 불균형'이었다.

성차별 현황을 통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에서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을 합한 가사노동 분담은 15.1%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고, 33.9%가 아내와 남편이 반반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전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비율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성차별은 교과서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평등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자료의 성차별적

9) <https://www.news1.kr/articles/?3431060>

10)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KOR>

표현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역할, 직업, 외모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 6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따라서 학교생활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에서 국가차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 이론이다(브론펜브레너, 1979; 조희금 외, 2023).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 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는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성차별 인식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다. 개인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성차별 현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태도에 성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과 정책을 통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 2021, 부부간 역할 분담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22), 가족관계학. 교문사.
이기숙, 박충선, 권희경, 김순남, 김영주(2021), 가족과 젠더.
창지사.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2023),
건강가정론. 신정.

1. <https://brunch.co.kr/@wikitree/2082>
2. <https://brunch.co.kr/@wikitree/2082?pidx=1>
3.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KOR>
4.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22414>
5. <https://www.herfamily.ie/parenting/parenting-heavier-toll-women-442269>
6.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32>
7. <https://www.news1.kr/articles/?3431060>

Abstract

Awareness and Challenges of Gender Discrimination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Hango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discrim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find a direction to form a positiv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was diverse at home, school, and society.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recognized gender discrimination throughout society and aimed for gender equality while receiving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In other words,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influence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and brought about a positive change in attitude toward gender equality.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mong early adult college students determines attitudes toward gender equality now and in the future, and has a lasting effect throughout adulthoo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cognize gender discrimination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and seek solutions to realize a gender equal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policies that link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Key words: Ecological Perspectives, Gender Discrimination, Education, Gender Equality

* 필자 정보

이행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가족 및 노년학이다.

*E-mail: holee1@gwnu.ac.kr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지식 및 생활습관

김진성 · 김나영 · 김준희 · 김지인 · 전수민 · 최예지(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지식과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대학생 114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리고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지식은 20점 만점에 10.2 ± 3.7 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고혈압 지식은 20점 만점에 16.1 ± 3.4 점이었다. 자신의 공복 혈당 수치와 고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대학생은 각각 21.9%, 58.8%였다. 대상자의 생활습관에서 현재 흡연율은 10.5%, 음주율은 64.9%였으며, 절주 하는 비율은 남자 대학생 55.6%, 여자 대학생 50.0%로 절반 수준이었다. 식습관이 좋은 대학생은 9.6%에 불과했으며, 나쁜 경우는 32.5%, 보통은 57.9%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근력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68.4%, 유연성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48.2%였다.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낸 시간은 6.9 ± 3.2 시간이었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33 ± 0.96 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과의 관계에서, 공복 혈당수치 인지와 규칙적인 운동($\chi^2=3.95, p=.047$), 혈압수치 인지와 규칙적인 운동($\chi^2=8.97, p=.003$)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음주 여부에 따라 고혈압 지식에서 차이가 있었다($t=-2.25, p=.026$). 비음주 대학생의 고혈압에 관한 지식점수(17.0 ± 2.8)는 음주 대학생(15.5 ± 3.6)에 비해 높았다. **결론:** 대학생의 당뇨병에 관한 지식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고혈압 지식은 중간과 높음 사이에 있었다. 비음주자의 고혈압 지식이 음주자에 비해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흡연, 음주, 식습관에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진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지식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한편 대학생의 단 간식류 매일 섭취율과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이 중간 수준이며, 당뇨병 지식 또한 중간 수준이고, 혈당 수치 인지율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당뇨병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당뇨병, 고혈압, 지식, 생활습관, 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당뇨병과 고혈압은 대한민국의 주된 만성질환으로,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 주 발병 층이었으나 최근 10년 간 발병 연령이 감소하여 청년층 또한 피할 수 없는 위험 질환이 되었다. 특히 청년층을 대표하는 대학생은 당뇨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업과 사회적 활동에 매진하며 건강관리는 뒷전이거나, 자신의 건강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반복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의 수행이나 일상 건강관리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과 같은 국가 질환 차원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2022)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18년 11.5%, 2019년 12.2%, 2020년 1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2020년, 30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4명(44.3%)이 당뇨병진단제라고 밝혔다. 또한 30대 신규 당뇨병 환자가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병원을 방문하는 병원 방문율은 2017년 기준으로 19.9%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im(2021)은 2021년 대한고혈압학회의 보고를 인용하여, 국내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9%를 차지하는 약 1,200만 명이라고 하였으며, 질병 인지율은 70%, 치료율과 조절률은 각각 66%, 48%라고 하였다. 이 중 20-30대 고혈압 진단자는 127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질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각각 17%, 14%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한명희, 2022에 인용됨).

이렇듯 당뇨병에 있어 30대 신규 진단자의 병원 방문율이 약 20%이며, 고혈압 환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이들의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은 약 10%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환자를 대상으로 지식, 치료지시 이행, 약물복용 행태와 관련 요인 등 질병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한명희, 2022; 윤민향, 2010; 민은실, 2012; 김중엽,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생활습관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으로서 조기건강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자신의 혈당과 혈압 수치를 인지하며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향후 당뇨병과 고혈압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지식과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2.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생활습관을 파악한다.
3.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지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4.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공복 혈당수치 및 혈압수치 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 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학생들의 단체 게시판에 대상자 모집 글을 올린 후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이 때,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1-\beta=0.8$ 로 하여 102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10% 를 고려하여 11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당뇨병 지식

당뇨병 지식은 심완섭(2006) 외의 당뇨병 지식 평가 문제지와 윤민향(2010)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정답은 1점, 정답이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 시 0점으로 처리하여 2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2) 고혈압 지식

고혈압 지식은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박혜련(2022)이 개발한 도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에서 정답은 1점, 정답이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2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혈압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생활습관

생활습관은 흡연(2문항), 음주(3문항), 식이(10문항), 운동(10문항), 스트레스(3문항)의 총 2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흡연은 오희철(2003)의 보고서 등, 음주는 보건복지부(2018) 자료와 Jung 외(2021)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식이는 보건복지부(2010) 매뉴얼과 질병관리청(2023), 운동은 보건복지부(2023)의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서와 양은준(2006)을 참고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 김은자 외(2011)의 연구를 참고로 스트레스 수준과 관리 측면에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안내문을 작성하

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동의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 URL을 자의로 연결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목적을 확인한 후,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에 체크한 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으로 데이터화 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령은 21세~24세 미만이 58명(50.9%) 이었고 20세 이하가 27명(23.7%), 24세 이상이 29명(25.4%)로 비슷하였다. 여성이 75명(65.8%), 남성이 39명(34.2%)이었다. 학년은 4학년 63명(55.3%), 2학년 22명(19.3%), 3학년 18명(15.8%), 1학년 11명(9.6%)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자취 59명(51.8%), 기숙사 35명(30.7%) 였으며, 본가 통학이 20명(17.5%) 으로 가장 적었다. 전공은 간호학이 59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 29명(25.4%), 인문사회 26명(22.8%)으로 비슷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32±0.9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6.5±1.1시간이었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특성에서 공복 혈당수치를 인지하는 경우가 25명(21.9%), 모르는 경우가 99명(78.1%)

였다. 자신의 혈압을 인지하는 경우가 67명(58.8%), 모르는 경우가 47명(41.2%)로, 대학생은 본인의 혈당 수치를 모르는 경우가 혈압 수치를 모르는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4

변수	분류	n(%)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20세 이하	27(23.7%)
	21세~24세 미만	58(50.9%)
	24세 이상	29(25.4%)
학년	1학년	11(9.6%)
	2학년	22(19.3%)
	3학년	18(15.8%)
	4학년	63(55.3%)
성별	남	39(34.2%)
	여	75(65.8%)
전공	인문사회	26(22.8%)
	간호	59(51.8%)
	공학	29(25.4%)
본가 주거지역	대도시	45(39.5%)
	중소도시	53(46.5%)
본인 주거형태	군지역	16(14.0%)
	자취	59(51.8%)
	본가 통학	20(17.5%)
가족 경제상태	기숙사	35(30.7%)
	상	12(10.5%)
주관적 건강상태(1~5점)	중	91(79.8%)
	하	11(9.6%)
수면시간(분/일)	3.32±0.91	
스포츠 활동팀(갯수)	0	102(89.5%)
	1~2	12(10.5%)
2.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특성		
당뇨병 교육 경험	유	67(58.8%)
	무	47(41.2%)
고혈압 교육 경험	유	64(56.1%)
	무	50(43.9%)
기본 건강검진	유	59(51.8%)
	무	55(48.2%)
공복 혈당수치 인지	유	25(21.9%)
	무	99(78.1%)
혈압수치 인지	유	67(58.8%)
	무	47(41.2%)

2. 대상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지식 수준

대학생의 당뇨병 지식은 20점 만점에 10.18±3.68으로 중간수준 이었다. 고혈압 지식은 20점 만점에 16.06±3.42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지식수준 N=114

변수	당뇨병		고혈압	
	M±SD	range	M±SD	range
지식점수	10.18±3.68	(2~17)	16.06±3.42	(4~20)

3. 대상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생활습관

대상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생활습관은 〈표 3〉과 같다.

대상자 가운데 현재 흡연자는 12명(10.5%), 비흡연자는 102명(89.5%)였다. 현재 흡연자의 하루 흡연량은 8.75±3.47 개피, 약 반갑 보다 조금 적다. 음주 상태에서 음주자는 74명(64.9%), 비음주자는 40명(35.1%)였다. 음주자의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였으며(1.09±0.93). 음주량은 절주 비율에서 남성이 20명(55.6%), 여성이 39명(50.0%)였다. 그러나 음주량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매우 과음하는 남성(41.7%)은 매우 과음하는 여성(21.3%)에 비해 많고, 과음하는 여성(28.7%)은 과음하는 남성(2.8%)에 비해 많다.

식이에서 단 음식을 항상 먹는 대상자는 53명(46.5%)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식습관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37명(32.5%)으로 대상자의 약 1/3이 나쁘다고 하였으며,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명(9.6%)로 매우 낮다.

신체활동을 살펴보면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과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 날은 각각 주당 약 1.4일(1.35±1.82, 1.36±1.1.97)이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은 62명(54.4%),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78명(68.4%), 유연성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55명(48.2%)로 각각 절반 정도였는데, 이중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약 6.9시간(414.65±194.81분)으로 하루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표 3> 대상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생활습관

N=114

변수	분류	n(%)	M ± SD (range)
1. 흡연			
흡연상태	현재흡연	12(10.5%)	
	비흡연	102(89.5%)	
현재 흡연량(개피/일)*			8.75 ± 3.47 (2~15)
2. 음주			
음주상태	음주	74(64.9%)	
	비음주	40(35.1%)	
음주빈도(회/주)**			1.09 ± 0.93 (0~5)
현재 음주량: 남 †	매우 과음	15(41.7%)	
	과음	1(2.8%)	
	절주	20(55.6%)	
현재 음주량: 여 ††	매우 과음	17(21.3%)	
	과음	23(28.7%)	
	절주	39(50.0%)	
3. 식이			
단 음식	항상 그런 편	53(46.5%)	
	보통	28(24.6%)	
	아닌 편	33(28.9%)	
식습관	좋음	11(9.6%)	
	보통	66(57.9%)	
	나쁨	37(32.5%)	
4.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일/주)			1.35 ± 1.82 (0~7)
중등도 신체활동(일/주)			1.36 ± 1.97 (0~7)
규칙적 운동	0회	62(54.4%)	
	주1~3회	32(28.1%)	
	4회 이상	20(17.5%)	
근력 운동	0회	78(68.4%)	
	주1~3회	22(19.3%)	
	4회 이상	14(12.3%)	
유연성 운동	0회	55(48.2%)	
	주1~3회	44(38.6%)	
	4회 이상	15(13.2%)	
앉아서 보내는 시간(분/일)			414.65 ± 194.81 (60~1,080)
5. 스트레스 정도			2.33 ± 0.96 (1~5)

*n=12 ; **n=85 ; †n=36 ; ††n=78

대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33±0.96점으로 중간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4.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지식의 차이

대학생의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지식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음주 여부와 고혈압 지식 간에 차이가 있어서 비음주자의 고혈압 관련 지식이 음주자에 비해 높았다($t=-2.25, p=.026$). 그 외 흡연, 식습관,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와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지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공복 혈당수치 및 혈압 수치 인지의 차이

대학생의 생활습관에 따른 공복 혈당수치 및 혈압수치 인지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규칙적 운동 여부에 따라 공복 혈당수치 인지($\chi^2=3.95, p=.047$) 및 혈압수치 인지($\chi^2=8.97, p=.003$)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흡연, 음주, 식습관, 스트레스와 공복 혈당수치 및 혈압수치 인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지식의 차이

N=114

변수	분류	n(%)/ M±SD (range)	당뇨병 지식		고혈압 지식	
			M±SD	t/F(p)	M±SD	t/F(p)
흡연	흡연	12(10.5)	9.83±3.95	-0.35	15.50±4.32	-0.60
	비흡연	102(89.5)	10.23±3.67	(.729)	16.13±3.32	(.550)
음주	음주	74(64.9)	9.73±3.70	-1.81	15.54±3.64	-2.25
	비음주	40(35.1)	11.03±3.55	(.073)	17.03±2.76	(.026)
식습관	좋음	11(9.6)	12.45±2.84	2.69 (.072)	17.18±2.14	0.65 (.524)
	보통	66(57.9)	10.15±3.84		15.95±3.70	
	나쁨	37(32.5)	9.57±3.44		15.92±3.20	
규칙적 운동	유	61(53.5)	9.77±4.12	-1.29	15.54±3.72	-1.76
	무	53(46.5)	10.66±3.08	(.200)	16.66±2.97	(.081)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낌	2.33±0.96 (1~5)	10.11±3.94	0.43 (.729)	16.39±3.08	0.67 (.571)
	많이 느낌		9.61±3.76		15.68±4.21	
	조금 느낌		10.59±3.46		16.35±2.79	
	느끼지 않음		10.33±4.12		14.89±4.49	

<표 5>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공복 혈당수치 및 혈압수치 인지의 관계

N=114

변수	분류	공복 혈당수치 인지			혈압수치 인지		
		앞		$\chi^2(p)$	앞		$\chi^2(p)$
		n(%)	모름		n(%)	모름	
1. 흡연	현재 흡연	3(2.6%)	9(7.9%)	0.74(.786)	8(7.0%)	4(3.5%)	0.35(.557)
	비흡연	22(19.3%)	80(70.2%)		59(51.8%)	43(37.7%)	
2. 음주	음주	13(11.4%)	61(53.6%)	2.34(.126)	43(37.7%)	31(27.2%)	0.04(.845)
	비음주	12(10.5%)	28(24.6%)		24(21.1%)	16(14.0%)	
3. 식습관	좋음	2(1.8%)	9(7.9%)	0.12(.943)	7(6.1%)	4(3.5%)	0.15(.926)
	보통	15(13.2%)	51(44.7%)		38(33.3%)	28(24.6%)	
	나쁨	8(7.0%)	29(25.4%)		22(19.3%)	15(13.2%)	
4. 규칙적 운동	유	9(7.9%)	52(45.6%)	3.95(.047)	28(24.6%)	33(28.9%)	8.97(.003)
	무	16(14.0%)	37(32.5%)		39(34.2%)	14(12.3%)	
5.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낌	9(7.9%)	19(16.7%)	3.55(.314)	18(15.8%)	10(8.8%)	0.88(.831)
	많이 느낌	5(4.4%)	26(22.8%)		17(14.9%)	14(12.3%)	
	조금 느낌	8(7.0%)	38(33.3%)		26(22.8%)	20(17.5%)	
	느끼지 않음	3(2.6%)	6(5.3%)		6(5.3%)	3(2.6%)	

IV.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한 지식 정도 및 생활습관(흡연, 음주, 식이, 신체활동, 스트레스)을 파악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 특성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인지하는 학생은 21.9%, 고혈압 수치를 인지하는 경우는 58.8%로, 고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이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공복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3~2015)로부터 고혈압 인지율(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율)을 조사한 연구(장은화, 2019)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청장년층에서 인지율이 낮다고 하였다. 이는 청장년층에서 임상증상이 없는 고혈압에 대한 혈압 검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장은화, 2019), 이 연구에서 조사된 20대 대학생의 고혈압 수치 인지율은 58.8%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의 당뇨병 관련 지식수준은 20점 만점에 10.18±3.68점으로 중간 점수였다. 비록 연구 대상자와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심완섭 외(2006)는 102명의 평균 연령 54.1±11.5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련 일반적인 문항의 정답률이 60.9±12.6%, 인슐린 사용 환자를 위한 문항의 정답률이 45.9±19.5%라고 하여 당뇨병환자의 당뇨병 관련 지식수준이 중간 수준임을 보고한 바 있다.

대학생의 고혈압 관련 지식수준은 20점 만점에 16.06±3.4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80점에 해당한다.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혈압에 관한 지식을 측정된 연구(김남순, 2008)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은 대학생의 고혈압 지식 점수는 79.64점,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대학생의 고혈압 지식은 73.27점을 보고하여 이 연구의 대상자가 조금 높은 편이

다. 이는 이 연구 대상자 가운데 간호학 전공 학생이 51.8%를 차지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생의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흡연자는 10.5%였으며, 이들의 흡연량은 하루 8.8개피 였다. 이 연구에서 음주자는 64.9%였으며,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1회 정도 술을 마셨다. 음주량은 성별로 절주, 과음, 매우 과음으로 조사하였다. 절주의 기준은 남학생에서 소주잔 4잔(소주 1/2병) 이하, 캔맥주 350cc 2캔 이하, 여학생에서 소주잔 2잔(소주 1/2병) 이하, 캔맥주 350cc 2캔 이하이다. 과음은 남학생에서 소주잔 5~8잔, 여학생에서 소주잔 3~6잔이다. 매우 과음의 기준은 남학생에서 소주잔 8잔(소주 1병) 초과, 캔맥주 350cc 4캔 초과, 여학생에서 소주잔 6잔(소주 3/4병) 초과, 캔맥주 350cc 3캔 초과이다.

이에 남학생에서 절주하는 비율은 55.6%로 절반 수준이었다. 매우 과음하는 학생은 41.7%, 과음은 2.8%로, 남학생에서 절주 외, 술을 마시는 경우 대부분은 매우 과음하고 있었다. 여학생에서 절주하는 비율은 50%로 절반이었다. 절주 외, 술을 마시는 경우 과음이 28.7%, 매우 과음이 21.3%로 비슷한 비율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 절주 비율을 높이고 특히 남학생의 매우 과음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고혈압 전 단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흡연자는 84.2%, 음주자는 83.7% 라고 발표한 연구(김소영, 2015)가 있어, 이 연구의 대상자보다 흡연자와 음주자 비율이 높는데, 이는 대상자의 유형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을 조사했을 때, 단 음식을 항상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절반 수준이었다. 식생활 10문항(각 문항 당 5점, 3점, 1점)의 총점을 좋음(35점 초과), 보통(26~35점), 나쁨(26점 미만)으로 분류한 결과(보건복지부, 2010), '좋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9.6%로 매우 낮았다. 반면 나쁨에 해당하는 학생은 32.5%로 전체 대학생의 1/3 수준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대학생은 54.4%였다. 이 중 고강도 신체활동은 주당 평균 1.35일, 중등도 신체활동

은 주당 평균 1.36일 하고 있었다. 유건규 외(202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당 평균 1.2회, 중강도 신체활동은 주당 2.1회 한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하나, 이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횟수가 더 적다. 결국 대학생은 고강도 혹은 중등도 신체활동 중 본인이 선호하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 평균 1~2일 운동을 하고 있다. 유연성 운동을 하는 학생은 48.2%로 절반 수준이었으나,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68.4% 인 점은 눈에 띈다. 즉 대학생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덤벨, 역기 등의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수면 시간,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14.65±194.81분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9시간으로 대학생은 하루의 약 1/3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다.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좋은 식습관 실천 비율은 낮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은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33±0.96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였다. 반면 김규리 외(2021)는 COVID 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를 3.36±0.78로 보고하여 이 연구보다 높다. 생활습관과 당뇨병 및 고혈압 관련 지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음주 대학생이 음주 대학생에 비해 고혈압 관련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당뇨병에 관한 지식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고혈압 지식은 중간과 높음 사이에 있었다. 비음주자의 고혈압 지식이 음주자에 비해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흡연, 음주, 식습관에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진 대학생의 당뇨병과 고혈압 지식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한편 대학생의 절반 정도는 단 간식류를 매일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도 절반 수준이며, 당뇨병 관련

지식도 중간 점수를 보였고, 혈당수치 인지율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당뇨병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학생 대상 당뇨병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한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이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규리, 김민주, 김세연, 김현지, 왕서영, 이지원, 최선하(2021).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보건복지연구』, 6(1): 45-56.
- 김남순(2008). "경남지역 대학생의 고혈압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5). "고혈압전단계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자, 권은시, 이흥순, 이성영, 박인혜, 정돌남, 이연정, 정영희(2011).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인관계,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4): 423-433.
- 김종엽(2010).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약물복용행태와 관련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당뇨병학회(2022).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https://www.diabetes.or.kr/bbs/?code=fact_sheet&mode=view&number=2390&page=1&code=fact_sheet.
- 민은실(2012). "고혈압 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기본간호학회지』, 19(4): 474-482.
- 박혜련(2022). "30~40대 고혈압 환자의 질병지각, 질병지식, 자기효능감이 치료지시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1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침』. p139.
- 보건복지부(2018). 『국가건강검진 검진 의사 상담매뉴얼』.
- 보건복지부(2023).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2023) 개정판』. December 1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208

- 심완섭, 최연실, 김은주, 남문석, 김용성, 홍성빈, Seong, B., 박이병, Ie-Byung, 최윤진, 안숙희, & 민기영. (2006). 당뇨병에 대한 두 가지 동형의 지식 평가 문제지의 개발. 『당뇨병』, 30(6): 476-486.
- 양윤준(2006). 『성인의 운동 신체활동의 한국형 표준 측정도구 개발과 한국형 성인 운동 신체활동 표준권장량 설정』. 인제대학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 오희철(2003). 『한국인 흡연율 평가도구 표준화 연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 유건규, 김민지, 김송아, 박지현, 신동윤, 이태린, 최선하(2023).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보건복지연구』 8(1): 41-50.
- 윤민향(2010). “영양교육 방법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 차이”,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화(2019). “세대별 고혈압 인지도 및 치료율 관련 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질병관리청(건강영양조사분석과)(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주요 결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December 8.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757>
- 한명희(2022). “고혈압 및 당뇨병 이환 청년들의 건강 행위, 질병 관리 상태 파악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48(3): 1-17. <https://doi.org/10.22900/kphr.2022.48.3.001>.
- Jung, J. G., Kim, J. S., Yoon, S. J., Lee, S, Ahn, S. K.(2021). “Korean alcohol guidelines for primary care physician”.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1(1): 14-21. <https://www.kjfp.or.kr/journal/view.html?volume=11&number=1&spage=14&year=2021>.
- Kim, Y. (2021). “12 million hypertensive patients in Korea... Awareness rate 70%, cure rate 66%, control rate 48%”. *Medical World*. Nov.

Abstract

Knowledge and Lifestyle Related to Diabetes and Hypertension among College Students

Kim, Jin Seong¹ · Kim, Na Yeong¹ · Kim, Jun Hee¹ · Kim, Ji In¹ ·
Jeon, Su Min¹ · Choi, Ye Ji¹ · Choi, Sun-Ha²

¹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lifestyle regarding diabetes and hypertension. **Metho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114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between April 10 and May 6, 202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9.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Diabetes knowledge score of college students was 10.2 ± 3.7 out of 20. Hypertension knowledge score of college students was 16.1 ± 3.4 out of 20. Subjects knew their fasting blood sugar and high blood pressure levels were 21.9% and 58.8%, respectively. In the subjects' lifestyle, the current smoking rate was 10.5% and the drinking rate was 64.9%. The moderate drinking rate was 55.6% for male students and 50.0% for female students. Only 9.6% of students had good eating habits. Sixty-eight % did not do strength training in the past week, and 48.2% did not do flexibility training. The average time spent sitting per day was 6.9 ± 3.2 hours, and the stress level was 2.33 ± 0.96 out of 5.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wareness of fasting blood sugar levels and regular exercise ($t=3.95, p=.047$) and awareness of blood pressure levels and regular exercise ($t=8.97, p=.003$). Meanwhile, there was a difference in knowledge of hypertens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drink ($t=-2.25, p=.026$). The knowledge score on hypertension of non-drinking students (17.0 ± 2.8) was higher than that of drinking students (15.5 ± 3.6). **Conclusion:** Students' knowledge of diabetes was intermediate, and their knowledge of hypertension was between intermediate and high. Non-drinkers' knowledge of hypertension was higher than that of drinkers.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udents with good lifestyle had higher knowledge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than students without good lifestyle in smoking, drinking, and eating habits. Meanwhile, considering that college students' daily snack intake and regular exercise practice rates are at an intermediate level, their diabetes knowledge is also at an intermediate level, and their blood sugar level awareness rate is low, there is a need to increase college students' awareness and knowledge of diabetes.

Key words: Diabetes, Hypertension, Knowledge, Lifestyle, College student.

* 필자 정보

최선하(교신저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공분야는 지역사회간호학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건강 증진, 보건교육, 학교보건 등이다. *E-mail: choish@gwnu.ac.kr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2024년 12월 24일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소장 이세원

편집인: 학술부장 한종화

기획부장 유선영

위원 장수정

위원 이선영

간사 박아름

발행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 소: 264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 화: 033-760-8907

팩 스: 033-760-8861

이메일: pr0489@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